

미야가하마: 근대 이부스키의 기원

이부스키 주변의 이 지역에는 최소한 조몬 시대(기원전 10,000 년~300 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초기 거주민들은 이동하며 수렵채집 사회를 형성하는 한편, 작은 마을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근대 도시였던 이부스키는 874 년에 벌어진 천재지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해, 가이몬다케의 대규모 분출로 반도 남쪽의 여러 마을이 화산재와 잔해 속에 묻혔습니다. 생존자들은 비교적 피해가 없었던 이부스키 북부 미야가하마 해변 부근의 지역에 모여 들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그곳에 정착했고 지역공동체가 발달했습니다.

이 지역은 1100 년대부터 1400 년대 후반까지 세력 있는 사쓰마 가문의 일족이자 규슈의 많은 지역을 지배했던 이부스키 가문이 다스렸습니다. 이부스키 가문은 미야가하마 근처에 성과 거점을 세워 이곳을 활기 넘치는 항구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미야가하마의 수심은 얕지만, 해안 가까이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형 선박은 외해에 정박해야 했고 여객선 화물은 더 작은 보트로 옮겨 운반해야 했습니다. 적절한 기반시설이 없어 밀수를 방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1833 년 사쓰마 영주는 길이 230m, 높이 5m 의 방파제를 건설할 것을 명했고, 이는 1 년 만에 화산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파제(‘간기시’)는 만의 정온수면이 유지되도록 돕고 대형 선박이 정박할 외해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로 이 구조물은 일본의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이 지역은 에도 시대(1603~1867) 말까지 주요 무역항으로 남았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변화하는 정치, 교육, 상업의 중심지가 옛 성곽 도시로 집중되었고, 이는 여전히 이부스키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일본의 여러 유형문화유산을 비롯해 여전히 많은 19~20 세기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